

2017년 9월 28일. <핑퐁> 프로젝트 협업자, 우정수와 이은새의 개별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 진행은 개방회로의 박이현이 했다.

우정수 인터뷰

이번 프로젝트 '핑퐁'에서 참여작가이자 기획자로서, 처음 협업을 구상한 시기와 계기가 궁금하다.

작년에 두 번째 개인전 '서사의 의무'를 마치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스스로 만든 제약들이 많이 생겼다. 최근에는 해마다 개인전을 하며 전시에 맞게 작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했다. 전시로 완결된 이야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문장을 조율하듯이 전시의 동선 그리고 메인 이미지와 서브 이미지 등을 고려하며 전시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레퍼런스 안에서 이야기와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닌가 답답했다.

올해부터 그런 제약을 푸는 전시와 작업을 많이 하고자 한다. 그래서 협업하는 방식으로 레퍼런스를 교환하며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다 보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

각을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전시보다 이미지를 교류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명확한 메시지보다는 이미 지적으로 즐거운 것에 초점을 맞춰, 자극적이고 가벼운 이미지들이 있는 전시를 하고 싶었다.

‘핑퐁’처럼 이미지를 주고받으며 작업했는데, 작업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없었나?

이은새 작가에게 어떤 이미지를 줘도 잘 완성할 거라는 신뢰가 있었다. 그래서 불안감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의성에 기대가 컸다. 협업 과정도 그만큼 재미있었다. 보통 나는 완결된 이미지부터 구상하고 작업을 해왔다. 그래서 예상했던 기법을 사용하고 예상했던 시간을 들여, 예상했던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작업 과정에서 오차가 적을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상상력도 줄어들는 듯하다. 반대로 오차가 클수록 실패할 가능성은 높지만, 상상하

는 것 이상을 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오는 즐거움이 분명 있다.

다른 많은 작가 중 이은새 작가에게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평소에 이은새의 작업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다. 작업 이미지 자체가 강하기도 하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사용할 때의 고민과 이를 이미지화하는 방식에 흥미를 느꼈다. 이미지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했다. 나와 이은새 작가가 흥미로워하는 이미지에 유사한 점이 많다. B급에서 오는 생경하고 날 것 같은 느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이 날로 드러나는 느낌이랄까.

이은새 작가에게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공유했나?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처음엔 일부러 더 이상한 이미지를 보냈다(웃음). 후에 이야기해보니, 이은새 작가도 그랬

더라. 내가 성적인 이미지를 안 다루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이미지들을 더 보내면서 내가 진저리칠거라 기대했다고 들었다.

중간 작업물을 봤다. 음악으로 치자면 매쉬업으로 구성된 비정규 앨범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6호 캔버스 한 치수로만 작업한 이유가 궁금하다.

변동된 계획과 관련이 있다. 초기 기획은 서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교환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둘의 표현방식 즉 구도, 색감을 사용하는 법 등이 너무 달랐다. 그래서 전시에서 최소한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 한 호수로만 작업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산 문제와 전시 후 보관 및 전시 분위기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초기 계획과는 달리, 두 작가의 이미지를 섞어 한 결과물을 내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 각자의 레퍼런스 이미지를 교환하고 보니, 공유한 이미지는 재미있는데 생각만큼 기존에 하던 방식과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중반 과정부터 기획을 바꿔, 서로 작업 이미지를 교환해서 각자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외에 고민해본 다른 규약도 있나? 예컨대 한 이미지를 여러번 주고 받을 수도 있었을텐데.

몇몇 작업에서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과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할 수 없었다. 몇 번 더 왔다 갔다하면 어떨지, 더 큰 그림으로 했으면 어땠을지 궁금하긴 하다.

하나의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삼을 때, 특히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레퍼런스 이미지는 무엇보다 원작자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더 고민하고 책임감

을 느끼게 된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지를 사용해야하는 합당한 이유다. 예컨대 사루비아에서 한 개인전 《불한당의 그림들》에선 인터넷 이미지, 영화 스틸 컷 등 서브컬처 이미지들을 수집한 뒤, 레퍼런스 이미지들의 구도를 변경하거나, 일정한 소재, 상황을 강조하여 이미지를 묶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형성했다. 서브컬처 이미지들을 사용한 이유는 이 이미지들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안함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작업 시, 그림을 먼저 그리고 다음에 제목을 붙인다고 알고 있다. 이번 협업의 경우, 표제는 어떻게 정했는가?

평소엔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저울질하며, 작업의 성격에 따라 무게 중심을 잡으려 한다. 예를 들어 크고 이미지가 강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단어로 제목을 지으려 한다. 너무 뜻이 많아 의미가 추상적으로 되거나 무감각적이고 무채색 같은 미묘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을 일부러 사용하기도 한다. 작업을 바라보는 데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되, 의미를 한정 짓지 않는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문장같이 하고 싶은 말을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선 내러티브가 아니라 이미지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중점을 뒀기에, 아마 사물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철자 혹은 번호 매기기 등 다른 방식으로 제목을 정할 것 같다.

종이와 잉크로 작업하다가 올 초부터 판넬(panel)을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무엇보다 종이는 부피도 작고 재료비도 싸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종이에 작업을 해왔는데, 전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 종이는 습도에 예민하기에, 전시 중에도 울고 심지어 떨어지기까지 했다. 마침 좀 더 무게감 있는 매체를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판넬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야 조금

감을 잡았다. 무엇보다 판넬이 매력적인 이유를 꼽자면, 캔버스와 다르게 옆면이 딱 떨어진다는 점이다. 종이 없이 나무판 위에 바로 작업을 하므로, 그 바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퍼티(putty)로 못이 들어간 부분을 메우고, 표면에 접착제가 올라오지 않게 한 번 더 씌우고, 그 위에 젯소(ghesso)를 6~7겹을 칠한다. 이때, 젯소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잉크가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종이보다 더 폭넓은 흡수 단계를 설계할 수 있기에, 이를 조절하는 재미가 있었다. 점점 잉크와 먹 역시 제품과 농도에 따라 예민하게 다를 수 있게 되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근래에 다른 소재나 질료를 다루고 있는 지도 궁금하다.

최근엔 4년 만에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다. 알루미늄 캔버스는 휘지 않기 때문에, 더 얇은 프레임을 쓸 수 있다. 판넬을 사용할 땐 판넬이 휘지 않도록 4~5cm

짜리 두께로 보강을 해야 해서 짐이 너무 많아졌다. 올해 작업물의 부피가 지난 2년간 작업물의 부피보다 4배가 넘을 정도다. 그래서 좀 더 보관이 쉽고 전시에 편한 재료를 물색하다가, 캔버스로 다시 돌아왔다. 그간 벽화, 패널 작업을 하면서 종이 외의 재료에서 먹이나 잉크를 사용하는 법을 조금씩 습득해왔기에, 캔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 기법 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

계속 선을 위주로 사용할 생각이다. 지금은 선을 더하고 더해서 면처럼 사용하고 있다. 뭔가 붓으로 소묘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다. 이미지가 완성되는 과정에 여러 장치가 개입하는 게 싫어서, 흑백으로 작업을 주로 했다. 당분간 바탕칠에 대한 반사나 흡수, 잉크의 농도에 따른 변화만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싶다.

올해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향후 계획에 대

해 알려달라.

올해엔 여러 기관에서 기금을 받고 레지던시에도 입주해 있어, 재료비와 공간 걱정이 없었다. 이런 일이 쉽게 올 것 같지 않아서, 뭔가 미련 없이 작업만 하는 기념비가 될 만한 해를 보내고 싶었고, 그렇게 보낸 것 같다.

요즘은 내년 1월에 열릴 두 개의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금호미술관과 온그라운드2에서 동시에 오픈할 건데, 두 전시 모두 바다가 배경이다. 메인 컨셉은 'Calm the Storm' 이다. 예수와 사도들이 타고 있는 배가 폭풍을 만나자 예수가 폭풍을 잠재우는 장면에서 'Jesus calm the storm' 이란 성경 구절에서 따왔다.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권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 이미지들에선 바다 한 가운데에 의지하고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과 행동들이 잘 묘사되고 있다. 내가 흥미를 느낀 지

점은 이 이미지들에서 예수 머리에 있는 후광을 지우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다양한 군상들을 담은 이미지가 된다는 점이다. 텍스트로 치자면 'Jesus calm the storm' 에서 주인공인 'Jesus' 가 사라지게 될 때, 내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작업해온 난파선, 유령선을 담은 이미지가 된다. 결국, 이를 통해 이미지와 내러티브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 하고 싶다.

개인전이 끝나면 당분간 운동도 하고 돈도 벌며, 생활과 삶에 집중하려 한다.

이은새 인터뷰

우정수 작가에게 처음 협업 제안을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

작년 겨울에 첫 제안을 받을 때, 개인전 '길티-이미지-콜로니'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너 마음대로 해" 라고 생각했다(웃음). 개인전을 마무리하고서야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정수 작가 작업을 계속 봐왔는데, 시선의 방향이 비슷하지만 표현 방식과 소재가 다르다고 느꼈다. 대체적으로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프로젝트 '핑퐁'은 서로에게 퀴즈쇼를 내며 진행해왔던 느낌이다. "난 이게 고민인데, 너 어떻게 풀어볼래? 이렇게 던져보면 너 어떻게 받아볼래?" 라고 묻는 기분이다. 말하자면 망치기 파티처럼, 서로 충돌하는 느낌이다.

서로 어떤 퀴즈를 냈는지 궁금하다.

처음에 우정수 작가는 내 사진을 보냈다.

아예 내 작품 <ㄱ>(2016)처럼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보내기도 했다(웃음). 전반적으로 그의 최근 작업에서 주변부를 장식했던 패턴들 같아 보였다. 나는 약간 더 노골적으로 섹슈얼한 이미지를 보냈다. 시각적으로 흥미를 느꼈지만, 내 작업에서 사용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이미지들이었다.

두 작가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둘 다 뼈뚫하다고나 할까. 우정수 작가는 프로파간다적인 이미지를 즐겨 쓰는데,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더라. 이런 태도가 나와 비슷하다. 나는 일상에서 느낀 작은 불만들을, 작업에서 농담하듯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단순히 반항으로 직역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지 않나? 뉴스 이미지, 영화의 한 장면, 인터넷 짤방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이용한다. 레퍼런스 삼는 이미지는 달라도, 우리 둘은 이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느낀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

나는 이미지를 맥락에 따라 수집한다기보다, 이미지에 담긴 상황을 기록한다고 할 수 있다. 웹서핑을 하며 발견한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직접 찍거나 혹은 못 찍는 상황이라면 모바일 디바이스에 드로잉을 하는 식으로 이미지를 모은다. 나는 이미지를 캡처할 당시 전후 맥락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다른 한편, 작업을 할 때 이미지가 담고 있는 상황들을 다소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그 상황이란 마치 물가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잠깐 번쩍하며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순간들이다. 그런데 우정수가 수집한 이미지에선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타인이 선택한 이미지들을 이용한다는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 점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재미있었다.

텍스트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겐 시각적으로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익숙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미지의 창작자로서, 이미지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 '핑퐁'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진작가 김주원과 협업한 바 있다.

사실 누군가의 작업 위에 덧그리는 방법 자체는 흔하다. 다른 점이라면 그때 김주원 작가의 사진 작업 위에 제가 드로잉을 했다는 점이다. 총 두 번 진행했었는데, 한 번은 집회가 주제였고 다른 한 번은 로맨틱한 이미지가 주제였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예술가들을 위해, 광화문에서 블랙마켓이라는 판매행사에 참여하게 된 게 협업을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였다. 평소 둘이 함께 집회에 참여하며 느끼는 무력감이 컸고, 집회 이미지의 파편들을 수집하며 모종의 불편함도 있었다. 협업에선 이런 기분들을 해소하고 싶었다. 그래서 김주원 작가가 집회에 참여하며 찍어뒀던 이미지 위에, 무력한 상황

을 흔들 수 있는 이미지들을 그렸다. 물대포에서 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온다거나, 전경 버스 위에 껌딱지를 그렸다. 가벼운 상상과 소망으로, 사진을 둘러싼 상황들 위에 낙서처럼 즉흥적으로 그려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하는 죄책감은 여전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반대 활동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김주원 작가와 함께한 다음 프로젝트는 로맨틱 이미지가 주제였다. 둘 다 평소에 성적인 이미지에 관심이 많은데, 타인의 이미지를 이용하지 않고 재밌게 다뤄볼 수 없을까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이미지를 다루면서 느끼는 죄책감과 불편함이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현실의 이미지들을 종종 차용해온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이미지와 현실 이미지 사이의 거리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한동안 레퍼런스 이미지의 맥락과는 관계없는 특정 부분만을 추출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왔기에, 작업과 레퍼런스 이미지의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어떤 일들을 겪으며, 그림과 현실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 그러다 보니 단지 이미지로 가볍게 소비만 한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렇게 소비하기엔, 이전엔 동떨어졌다고 느껴졌던 현실이 이제 정말 내 주변의 일이 되었기에 책임감이 커졌다. 그래서 요즘엔 현실의 이미지들을 이용하는 게 즐겁기보다 불편하다. 하지만 여전히 자극적인 장면들에 눈이 먼저 간다. 머리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은 끌린다. 여기서 괴리감을 느낀다.

우정수의 작업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뒤통스였는지 궁금하다.

먼저 우정수가 제시한 그림을 일종의 키

워드도 파악한 뒤, 거기서부터 내가 보거나 생각했지만 잊고 내버려뒀던 이미지들을 연상해서 꺼내왔다. 우정수 작업 위에 바로 그린 것도 있고, 약간의 연습을 해본 것도 있다. 완성된 형태의 드로잉을 하진 않았고, 에스키스만 가볍게 미리 해본 정도다.

평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작업을 완성하나?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림을 그리며 생각을 한다. 파편적으로 이것 저것을 경험하고 모아서 귀납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편이다. 최근에 다음 전시를 준비하며 주제를 미리 명확히 정해놓고 시작하려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작업 방식은 나에게 지루하다. 생각이 정해지면 재미없어진다. 좋은 습관은 아닌데, 내 결과물에 비관적인 편이다.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특히 요즘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작업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현실에서 동떨어져있는 건 아

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든다. ‘내가 대체 뭐하고 있는거지?’ 하는 생각이 찾아오는 기간이라서 그런가보다(웃음).

최근 작업에서 어떤 변화가 느껴진다. 단순히 추상에서 구상으로라는 말 이외에, 작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전엔 증폭되는 감정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 표현적인 붓질이나 여러 색조합을 이용했었다. 최근에는 상황 자체에 집중을 해서, 붓질을 좀 더 정돈해서 사용한다. 색도 가볍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형태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나는 남이 볼 때는 일관적일 수도 있지만, 실은 왔다갔다 하는 편이다. 풍경을 하다가도 갈증을 느껴 인물을 하고, 추상을 하다가도 세세한 묘사를 하기도 한다. 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튀고, 다른 생각을 한다. 이미지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닐까 한다.

드로잉북을 꼼꼼히 모아뒀다. 사전 드로잉은 완성된 작업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나?

드로잉에선 색 조합에 대해 좀 더 실험할 수 있다. 그래서 드로잉이라도, 연필보다는 수채화나 잉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분명 유화로 큰 그림을 그릴 때와 드로잉을 할 때는 느낌이 서로 다르다. 가볍게 그렸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귀한 표현들이 있다. 딱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회성의 표현들이 좋다.

색을 정할 때 염두에 두는 바는 무엇인가?

각각의 색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된 색들을 함께 쓰는 편이다. 예전에는 현실에서 잠깐씩 벗어나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보색을 많이 썼다.

최근에는 파스텔톤을 많이 쓴다. 좀 더 얇게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엔 감정

과 느낌보다는, 상황과 형태를 묘사하려 한다. 이미지의 내용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가벼운 색을 많이 쓴다. 특히 배경에는 하늘색을 많이 쓰고 있다. 나에겐 기본색 같다. 하늘색은 한 번에 잘 덮히는 색이라서 좋기도 하다. 오죽하면 한 작가가 내 작업실을 보고, 하늘색 제소도 있냐고 물을 정도였다(웃음). 최근에 유화 작업에선 카드뮴 레드 라이트를 많이 썼다. 이 색도 맑고 잘 덮힌다. 불투명한 색도 좋아한다. 이미지에서 이상한 부분을 짚어줄 때 좋기 때문이다.

회화 이외의 매체도 시도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회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편적인 내용의 그림들이 엮여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입체물에 드로잉을 한 적도 있다. 전시보다는 마켓용이었다. 이후에 다른 매체를 다루더라도, 회화가 기반이 될 것 같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되게 뭉뚱거리려 표현한다. 회화란 이런 내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 모호한 생각들을

보여주기 좋은 매체다.

다른 매체(나무 판넬/잉크 등)에 비해 캔버스/유화가 갖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무 판넬에 수성 재료들을 이용해 작업할 때는 비교적 종이 위에 드로잉하는 듯한 즉각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위로 수정을 하거나 레이어를 쌓기는 어렵다. 반면 캔버스와 유화는 깊이 있는 표현을 할 수 있고, 레이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표현의 폭이 넓어서 농도나 두께등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

요즘 특히 집중하고 있는 작업은 무엇인가?

유독 텔레그램 스티커를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웃음). 다른 텔레그램 스티커에서 찾지 못한 세세한 감정들을 표현하며, 장난스럽게 스티커를 만들었다. 참, 포켓몬 스티커도 준비 중이다. 아직 하나 밖에 못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내년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

내년 상반기에 개인전을 연다. '길티-이미지-콜로니'에서 다뤘던 내용의 일부를 확장해서 진행해 보려 한다.